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위해 최선”

■ 취임 첫 공식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 광주일보와 인터뷰

광주는 민주주의 발전 주춧돌... 첫 방문지 선택은 당연

잘못된 정부 정책 냉정하게 비판·견제 기능 다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과 관련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임’은 광주정신을 뜻한다고 생각한다”며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화 의원은 지난 14일 광주를 방문, 광주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국회의 촉구결의안을 무시하는 것은 여야 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첫 공식 지방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정의 의원은 “동서 화합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주춧돌을 놓은 곳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첫 방문지로 광주를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 호남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의 의원은 현 정부 호남 인사소외와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 권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회의장이 가타부타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저 스스로 국민화합을 위한 대량평 인사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개 후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정

의장은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의 박수소리가 들리는 ‘화합의 전당’,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적 갈등을 녹여내는 ‘소통의 전당’, 국민을 위해 365일 일하는 진정한 ‘민의를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며 “임기 동안 국회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장이 당적이 없는 것은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여야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의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정부, 청와대와 여당과의 관계에 대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냉정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다할 것이며 국의를 위해 행정부와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 있다면 여야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당과 청와대는 2인3각의 자세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일

청와대 초청으로 대통령을 직접 만나 티타임을 가지면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2015년 예산안 제출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회 앞에서 직접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필요하면 먼저 전화하고 편지와 이메일도 보낼 생각이요 국민을 위한 편에서 서서 대통령과 소통을 넓혀 나갈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에 대해 정의 의원은 “그동안 국회회담 예비접촉과 준비접촉은 몇 번 있었지만 본회담은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회담 의제를 정치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문화·보건으로 분야 등보다 비정치적이고 덜 대립적인 의제부터 유연하게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를 위해 의원들을 대상으로 남북 국회회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남북 국회회담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모이는 자리를 조만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이날 정의 의장의 참배에는 오재일 5·18기념재단 이사장 등 5·18 단체 대표, 지역 국회의원, 이정재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정치연합 사무총장에 주승용 의원

새정치연합이 지난 13일 주승용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위 의장에 우윤근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김재운 의원, 인재영입위원회에 유인태 의원, 수석대변인에 유기홍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또 박수현 의원을 김한길 대표 비서실장에, 송호현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에 앉혔다. 안철수 대표를 보좌하는 문병호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번 당직 개편은 김 대표의 신주류 의원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친노(친 노무현계) 인사 등 다양한 계파의 인사를 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 정책위의장과 유 수석대변인은 범친노계, 유 인재영입위원장은 김근태계, 김 전략홍보본부장은 김두관계로 각각 분류된다. 또 박수현 비서실장은 안희정 충남 지사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주 사무총장은 김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 공

정책위의장 우윤근 의원

수석대변인 유기홍 의원

동대표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던 손학규 상임고문계 인사는 배제돼 한계를 보였다

박광은 대변인은 “그 동안 당직을 맡지 않아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분들도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했다”며 “당의 안정적 기반을 확보하고 2017년 수권정당을 향한 단합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사무총장은 전남도위원과 여전교수,



주승용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여수시장을 차례로 지낸 3선 의원이다. 역시 3선인 우 정책위의장은 18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으며,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프로필

지정부 장관 지낸 ‘친박’ 경제전문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언론인과 경제관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경제전문가.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당시 대표)의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대표적인 친박 인사다. ▲경북 경산(59) ▲지식경제부 장관 ▲17·18·19대 국회의원

한국교육학회장 역임 보수성향 교육전문가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한국교육학회장을 맡고 있는 교육전문가. 1948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지만 1951년 1·4 후퇴 당시 부모와 함께 월남해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학자지



만 보기 드물게 행정마인드를 갖춰고 보수 성향이다. ▲경북 경주(66)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한국교육학회 회장

사회개혁 분야에 정통한 보수 성향 헌법학자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사회개혁 분야에 정통한 국내 최고 권위의 헌법학자. 헌법을 단지 학문이 아니라 생활규범이자 재판규범으로 구체화·생활화 하는데 크게 공헌했다는 게



헌법학계와 법조계의 평가다. ▲경북 경주(5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 이사장...IT 전문가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

정보통신분야에서 학계와 관련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대표적인 IT 전문가. 학계에서 후진양성과 연구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다양한 학회 활동과



각종 정보통신분야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 ▲강원 강릉(59) ▲한국정보과학회 회장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 초대이사장

30년간 방송기자 생활... 19대 총선때 새누리 입당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

KBS와 SBS를 거치며 30년간 방송기자 생활을 한 중견 언론인 출신.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 입당, 경기파주에 공천을 받았으나 당시 민



주당 윤호덕 후보에게 패했다. ▲서울(59) ▲새누리당 18대 대선캠프 공보단 위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아리랑TV 사장

함평 출신...비정규직법 입법 주도 등 노사정책 관여

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노동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고용노동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2009년 근로기준국장으로 재직할 때 비정규직법의 정부 입법을 주도하는 등 노



사정책에서 균형감을 발휘했다. 노사관계와 고용, 청년 교육을 두루 경험했다. ▲함평(57) ▲광주고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17대 총선 최연소 당선...당 부대변인도

김희정 여성부 장관 후보자

정치권 입문 이후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새누리당 여성 재선 의원. 당 부대변인이던 17대 총선에서 33세의 나이로 부산 연제에 출마, 전국 최



연소 당선 기록을 세웠다. 회사원인 권기석 씨와의 사이에 1남 1녀. ▲부산(43) ▲17·19대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장

광주·전남 프리모 남기발

大山 프리모 남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복중알카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텀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